여학생운동 평가

-첫출발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0.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도움글

(1) 여학생운동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나서는 문제점

기간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여학생운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성과와 한계, 오류점등을 잘 찾지 못하겠다.

(2) 원인

여학생운동의 총적인 방향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평가의 방법을 올곧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단위의 평가가 부재하다.
평가를 위한 평가이고 이후 사업과 연결되지 못한다.

(3) 평가의 원칙

주체적 입장과 여성민중 중심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입장이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문제는 언제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 입장과 사업과 투쟁의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는 자기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운동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며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학생운동을 총화함에 있어서 철저히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며 객관의 현상적인 변화에, 대중의 분위기에 편승하려는기회주의적, 절충주의적 시각과 자신의 인식의 판단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조직과 동지의 탓으로 돌려버리려는 개인주의적 시각 그리고 관성적인 주체 혁신의 구호만을 내걸고 실천적인 결의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비하적 평가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모든 객관의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의하여 다르게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민중을 특히나 농민들의 입장에서서 보면 자신의 모든 수확을 빼앗기고 가족들또한 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기막힌 처지이지만 이를 친일파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호기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입장,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의하여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역사와 사실이 대부분 남성중심적이고 지배자의 입장에 의하여 씌여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층 여성민중을 중심으로하여 평가를 하는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평가의 구체적 원칙

1. 주체를 세우는 과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운동현실은 복잡하고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민민운 진영은 전술상의 견해의 차이를 넘어 사상투쟁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말 몇마디와 대중적 상식으로는 운동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자기 판단의 근거를 옳게 정립할 수 없습니다. 여학생운동에 있어서도 선거나 사업을 할 때마다 골간일꾼 및 같은 일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면운동을 총화하는데서 주로 나타나는 말들은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왜 이러나', '내 수준으로는 더 이상 여학생운동을 할 수 없다', '여학생운동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지쳤다. 좀 쉬고 싶다'등으로 운동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동요와 회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총화에 있어서 이런 편향의 주되는 이유는 우리 일꾼의 준비정도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전체 운동상황과 정세의 변동, 주체역량의 성숙정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당면 운동상황은 대중 상식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운동론적 견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추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운동을 총화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사물현상과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학생운동을 총화하는데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사상적 수준에 의해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단히 주체를 세우는 과정으로 우리 운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며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정치사상적 수준을 부단히 높여높은 사상이론적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여학생운동을 총화하고 분석하여 여학생운동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객관적 현상이나 수치뿐 아니라 주체역량의 성숙정도가 총화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과 생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상적인 수치나 사람의 수를 두고 그것만을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을 얼마나 읽고 몇번이나 학습을 했느냐가 총화의 지점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참가자의 정치 사상적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집회에 얼마나 왔고 출범식에 몇 명이 왔느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회에 참여한 대중들의 준비정도와 결의가 어떠한가입니다. 운동총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여학생운동의 원칙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그 실천 주체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학생운동의 현실은 골간운동에 비하여 더욱 열악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때 똑같은 자대를 들이밀고 총화를 하는 경우에는 늘 패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단위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역량의 준비정도에 맞는 총화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3. 성과의 요인을 잘 챙기고 그 힘으로 한계를 극복할 데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총화에 임하여야 합니다. (주관주의와 자기만족주의, 청산주의와 패배주의, 절충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주체역량의 성숙정도를 중심으로 총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칫 주관주의와 자기 만족주의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주의, 자기 만족주의는 평가를 내린 현실에 안주를 해버리지만 주체적인 총화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려는 사상적 관점으로 주관주의, 자기만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적인 총화란 바로 성과의 요인을 잘 챙기며 그 힘에 기반해 나섰던 한계까지 극복해 사업과 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화를 하는데서 패배주의와 절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될 자세들 중의 하나입니다. 패배주의와 절충주의의 근본은 현실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객관현상의 변화무쌍함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릇된 사상경향으로 이는 오래되면 나중에

는 운동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소한 고민이라도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운동현실은 개량과 절충이 혼재되어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운동상층에서의 혼란과 동요는 운동의 통일단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층일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여학생운동에 있어서 명확한 이론과 실천적 경험의 부족, 운동역사가 짧음으로 인해서 여학생운동과 전체운동과의 사이에서 고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현상은 운동이 내용적으로 깊어지면서 나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본질적으로는 사상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부단한 연구와 학습을 통한 토론과 논쟁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이속에서 경계하여할 것은 덮어놓고 의심하고 동지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을때에는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동지들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며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조직은 동지를 믿도 동지는 조직을 믿으며 사소한 고민이라도 털어놓고 반드시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으며 주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식과 행동의 주체는 사람, 자기자신입니다. 해서 누가 권유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선진사상을 받아들이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변혁의진리를 이치적으로 공감하게 될 때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시기일수록 토론을 통한 교양과 설복이 중요하게 나서며 그러할 때만이 모든 일꾼들이 사심없이 조직과 동지들 앞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5. 한계인가 오류인가

운동을 풀어가다보면 현실적인 자기 단위에 나서는 문제와 상황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똑같이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객관환경과 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변화무쌍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를 놓고 그것이 현실 우리의 준비 정도에 한계적 지점인가 아니면 운동의 방향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오류였는가를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류와 한계를 잘 구별하여 한계적 지점을 잘못된 오류로 판단하여 전체 투쟁과 사업에서 패배적 내지 조직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대중들과 (혹은 골간일꾼들과)의 총화에서 나서는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우리 일꾼들이 가장 크게 겪는 고민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는 동의를 하는데 대중들과 합의하고 동의하는데서 나서는 답답함은 대중 실천활동에서 소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을 총화하는데 있어서 나서는 대중들과의 괴리를 극복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논리정연한 그 어떤 말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식화에 선차적 주목을 돌리는 것입니다. 대중의식지형을 현상태로 방치해서는 각종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대중들의 사상의식은 점차 부패해지고 운동권과의 인식차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운동을 총화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고 인내심있는 대중 의식화활동을 펼침으로서 대중과 운동가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반동적 사상이데올로기 공세를 짓부수어야 할 것입니다.

7. 총화한 후에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동지들과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함께 총화하도록 합시다.

현실운동은 대중상식의 눈으로 분석하고 결론내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자신의준비를 비상히 다그치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궁금증을 풀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히 풀리는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식의 주체는 자기자신이라고 했을 때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운동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높여가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4)평가를 잘하기 위한 방도

평가의 중요성을 각인하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것까지는 모두 진행하지만 평가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느라 바쁘고 지쳐서 다음에 차분히 하겠거니 하고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 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는 사업을 다시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를 짚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끝은 평가까지 마쳤을 때 끝이난다는 관점을 가집시다.

평가의 틀을 내오고 맞추어서 평가하자.

평가총화를 위한 평가틀은 사업을 집행하기전에 제출하여 사업을 집행한 후에 꼭 틀에 맞추어서서 평가하도록 합시다. 평가를 할 때 그저 좋았어요 하는 식의 추상적인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진행할 것이아니라 입안에서부터 집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평가하여야 합니다.

평가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다음 사업시 꼭 먼저 참조하자.

대부분 다음 시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난해 사업을 한 계획서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사실 성과, 오류, 한계점을 잘 짚을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는 지난해 평가의 지점을 잘 짚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설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늘 사업이 끝나면 평가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음 사업 입안시 저번 사업의 오류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짚는 것을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기층과 함께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사업이 끝나면 그 평가를 상층 몇몇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과 대중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여야 하는 이유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짚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사업과 투쟁의 주인주체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몇몇핵심들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층과 평가의 내용을 되짚어보고 대중적으로 사업의 과정을 총화해주고 평가받도록 하는 과정이 될 때만이 그 사업은 대중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의 정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인가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기술하는데서 알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상층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어 기층에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하는 방법은 직접 상층간부가 기층일꾼

평가하는데 함께하여 총화의 틀도 내오고 논의에 참여하여 지도해줌으로써 평가의 방법을 잘 터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의 시기를 놓치지 말자.-평가유효기간 1박 2일

어쩌면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고 나면 우선 끝났다는 안도감과 과정에서 지치다보니 평가의 과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이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늦어지다 보면 나중에 평가하려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다른 사업과 투쟁에 치여서 소홀히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평가를 하는데 좋은 시기는 일박 이일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평가까지 마치는 것이 사업의 끝이라는 생각을 각인합시다.

1. 80년대 90년대 기간 여학생운동의 평가
-80-90년대 여학생운동사

태동에서부터는 약 20여년 전여대협 12년의 역사를 밝히고자 함은 2천년 새로운세기 새천년의 운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운동의 운동법칙상 성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전의 과정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해를 단절적으로 주체역량을 진단한다면 장기적인 운동의 흐름에서 일시적인 쇠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의 중심을 그러한 빈약한 부분에 두면서 패배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2000년 요구되어지는 지점을 명확히 진단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놓여집니다.

70년후반에서 80년 초기의 시기

이시기는 여학생운동이 태동하고 전 대학에 여학생운동 조직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독자적인 여학생 조직을 만들었던 것은 70년대 후반에서부터이다. 78,79년 당시의 학생운동은 유신치하에서 비밀 스럽게 유지되던 이른바 언더사회과학 학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엄격한 보안을 생명으로 하던 지하 사회과학학회는 여학생들에게는 철저한 금단의영역이었다. 그것은 여학생수가 적은 학교라는 탓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 직접 그리고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남학생이 감옥에 가면 약혼자를 빙자하여 감옥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나름대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사회과학 학회의 닫혀진 문은 커다란 충격이자 좌절이었다. 한마디로 학회의 분위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 엄혹한 실천을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녀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풀어져 학회의 장래를 망치고 만다는게 여학생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사회과학학회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수없는 좌절과 모멸을 겪어야 했던 몇몇 여학생들의 주도하에 학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것은 가장 진보적이라는 학생운동권에서 가장 후진적인 남녀차별 행태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여학생들이 제법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쪽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제넘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만큼 여학생들의 의식은 더 단단해질 수 밖에 없었다.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역할을 맡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은 진정으로 사회적 의식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그런데 남녀차별의 이데올로기는 다만 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입생들은 남녀혼성써클은 선호하고 여학생학회에는 가입하기를 꺼리고 남학생들의 비방역시 여학생들이 가입을 꺼리는데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급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순을 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과 민족민주운동내부에서 공동의적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남성들의 보수반동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보는 분열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때 여성학의 경향은 양비론, 이중체계론적인 경향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여성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를 펴내는등 여학생학회의 좁은 틀로는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단과대학 여학생회로 포괄해 내면서 여학생들의 입지가 훨씬 강화되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학생운동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해내면서 82년이후 점차 학회들이 여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고 오히려 군대문제등으로 인한 단절이 없어서 여학생들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84년이후 학원자율화조치로 대중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들이 1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이 후의 활동은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과 각종 가두투쟁을 여회단위로 첨여하는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톰보이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서울지역 여대생 중심으로 펼쳐졌다. 70년 후반부터 80년대 까지 큰 흐름으로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 모색(자유주의적인 관점, 급진적인 관점, 맑스주의적인 관점등으로 각각을 연구한 이후에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여성억압의 근원을 찾는 맑스주의적인 관점의 타당성을 받아들였다.)의 과정이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의 간부들의 모습은 여성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주체의 결의가 매우 높았고 변혁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 나가려는 의지가 높았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속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학생운동의 급진적이고 봉건적인 풍토가 여성활동가들의 사상적 한계로 인해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을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배척하고 무관심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용 하였다. 이러한 풍토가 교양, 설득을 통하여 극복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부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경향을 낳게 되고 소위 운동권 여학생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은 여학우대중과 여활동가들 사이에 괴리감, 불신감등의 갈등을 심화하게 된다.

개괄적으로 이 시기의 여학생운동은 소수 활동가 중심이었고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가장 큰 한계를 갖게 되며 여성운동을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사상적으로 확고히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급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

86년에서 88년까지

여학생운동의 내용성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비합법 써클주의 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당시의 주요한 구호로는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타도등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모성보호,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족법 개정등 민주헌법에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한편으로는 반미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실상에 관한 관심이 선진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게 되

고 반북의식을 깨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역사와 전통, 대중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군부독재와 변혁운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86년 여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많은 여학간부들이 구속되어 남이있는 간부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단을 하고 투쟁주체를 세워냈으며 서울대, 고대, 성대를 중심으로 공동 대책위를 세워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부천 검찰청에 농성과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속에서 여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중적 토대에서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쟁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여학생운동 또한 연대운동속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교훈 속에서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가 건설되게 되었다. 88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투쟁에 결합하여 매춘올림픽 반대투쟁을 벌였다.
이것은 미국내에 잡지의 한국인 모독 기사에 분개한 재미교포의편지가 오면서 여대협, 여성단체들이 공동의 투쟁을 벌였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을 벌였다.
87년 이후에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대해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다. 여학생회 건설이 형식적인 선거를 치루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대중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학우들 속에 뿌리박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통해 대중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88년에는 이러한 87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논의속에서 중요하게 얘기되었던 여학생회 건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소규모의 학습모임에서 학우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실천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은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고 여학생회의 활동을 강화하였다는 것 또한 진일보한 모습이었으며 여학생회 활동이 확산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자주성에 기반한 사업을 벌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사와 실무로 그쳐 버리고 오히려 형성되기 시작하는 대중의 모임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89년부터 92년 말까지

이시기는 여학생운동의 내용적 강화와 조직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내고자 주력하게 되는 시기이다. 드디어 전국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국 총여학생회장단 약 70여명이 모여서 전여대협 건준위를 구성하고 평양축전에 제 7센터에 참여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선전활동을 벌였다. 이는 기가에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전국적인 여학생운동의 성장으로 자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방법과 조직건설에 주력하게 되는 시기이다.
89년은 전여대협 건준위를 결성이라는 고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여성 자주화의 이념이 확산되고 사람중심의 조직관이 제기되면서 대중운동을 통한 여학생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89년 취업차별 철폐투쟁은 정치투쟁중심의 선도투쟁의 편향을 극복하고 대중적인 이해와 요구를 모아보려는 모범적인 투쟁이었으나 상층과 기층이 취약한 상태에서 여학우대중과 함께 벌여내려는 투쟁이었다기 보다는 상층중심의 투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89년 이후에는 기간의 다양한 실천과 투쟁속에서 얻어진 한계와 성과들을 통해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대중을 자기삶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명제가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지게 된다. 또한 88년 89년을 거쳐 여학생운동의 조직적인 성과물로서 각 지역 총여학생회 연대기구인 지역여대협이 전국적으로 건설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대협은 지역차원으로 여학생운동을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출발하였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체학생운동속에서 변혁운동의 3대 주력군 운동이 운동의 근거지로부터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학생운동은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을 이루는 것을 조직적인 과제로 삼는 자주적 학생회 건설의 새로운 기치를 들게 된다. 자주적 학생회노선에 기반하면서 여학생운동에서도 자주적 학생회를 더욱 풍부히 고민하는 자주적 여학생회노선이 제기된다. 학생운동 전반적으로는 기층과 사업단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여학생운동속에서도 대중노선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여학생회 모임이 다양하게 건설되면서 의식화의 내용도 이전의 관성적인 사회과학 학습위주만이 아니라 여학우들로 하여금 식민지 여성으로서 자기존재를 인식하고 여학생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92년은 보은 진관투쟁은 많은 여학우들의 분노에 기반해서 여학생회가 여학우들과 함께 끈질기게 투쟁을 벌였던 여학생운동사에서는 큰 획을 긋는 시기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보은, 진관 무죄석방투쟁이 처음에는 무죄석방과 성폭력특별법 제정, 그리고 5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 없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7월에 들어서면서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바뀌어 가면서 투쟁의 목표가 여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변화해가기 보다는 정세의 흐름만은 중심으로 투쟁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여학우 대중과는 어느정도 괴리되는 투쟁이 진행되었다.
윤금이씨 투쟁과 서여대협 차원의 기지촌 활동은 우리 여성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식민지 분단조국이라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구체적 현실로써 느낄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다. 여학생운동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당위적인 과제로 세우면서도 그것을 자기 내용으로 받아안고 있지 못하였으나 윤금이씨 투쟁속에서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반미자주통일 투쟁을 여학생운동의 과제로 삼게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이 시기에는 그동안 계속 여학일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던 자주적 여학생회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시기이다. 93년에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일대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14대 대선패배이후 결과에서 나타난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성과와 한계를 총화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전개해야했다. 이러한 가운데 93년 제기되는 총적인 과제는 대중의식화를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국내외적인 정세속에서 학생운동 또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되고 학우들의 자주적인 삶을 높혀주고 진정 학우들이 만들어가는 대중 자치공간으로써의 학생회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진지한 모색속에서 전대협의 전통을 계승혁신하는데 백만청춘의 조직으로써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총적 기치로 내걸게 되는데 제 1기 한총련이 건설되게 된다.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철저히 학우들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기치를 들고 생활, 학문, 투쟁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부문계열운동의 강화의 한목소리가 전체운동속에서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된다.
94년 제 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6기 전여대협(건)이 정식으로 한총련에 가입하게 되고 한총련 내부에서도 부계운

동강화소위를 구성하여 이전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진일보하여 부계운동을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큰 흐름속에서도 부문계열운동의 내용적인 강화에 대한 중심보다는 형식적인 계기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여학생회 자체에서도 자주적 여학생회론의 구체적인 정립,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좌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어느해보다 활발해지고 6년동안 전여대협 투쟁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어느해보다도 힘있게 전여대협의 건설의 기치를 높게 들게된다. 95년에는 전여대협 총회를 통해서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통일선봉대를 조직하여 7,8월의 통일투쟁의 불바람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모았으며 통일투쟁의 일환으로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 산하에 여학생회조직과 자주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96년말부터 99년까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여학생운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96년, 97년은 김영삼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민중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정권에 항거하는 투쟁이 거세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김영삼정권은 파쇼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한총련 씨말리기-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게 됩니다.
96년 여름 연대항쟁때 사상유례가 없는 물리적, 사상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하여 수천명의 통일투쟁에 참가한 학우들을 강제 연행하고 여론을 조장하여 빨갱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97년 한총련 출범식을 계기점으로하여 한총련 탈퇴를 종용, 한총련 대의원인 핵심들을 연행하였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만들어 그이후까지 계속 탄압을 하게 되었다.
여학생운동단위는 96년 연세대 항쟁가운데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진산규명 책임자처벌투쟁을 법적 투쟁과 여론화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냈고 당시 김영삼 정권을 반여성,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김영삼 정권을 조기타도 하는 투쟁에 최선봉에서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속에서 여학생운동을 하는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와 구속을 받게 되었고 학생운동의 어려움 속에서 여학단위뿐 아니라 전체 학생운동단위까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97년 학생운동에 불어닥친 탄압과 여러 어려움들은 핵심의 구속, 학생운동에 대한 대여론적인 반감등으로 학생운동의 약화를 가져오게되는 시련의 시기였다. 전체 운동의 약화속에서 여학생단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고 조직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상당히 컸고 전여대협 의장을 비롯한 핵심들의 구속으로 반년이상 공백의 시기를 겪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이시기가 그저 시련과 피해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다. 학생운동단위의 어려움속에서 전체 운동까지 책임지면서 운동의 핵심으로서 단련된 많은 여학일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학생운동의 변혁운동적 성격을 확고하게 한 계기였으며 많은 사상적 혼란속에서 굳건히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핵심들을 중심으로 다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과제를 도출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대협과 전여대협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많은 부계단위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전여대협만은 굳건히 자리자리를 지키고 전여대협 총회와 출범식, 통일선봉대를 꾸준히 치루어냈으며 중상회의등 전여대협 회의구조또한 안착화시켜 나갔다.
이기순, 허주연 신차금 전지나 이정숙씨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에 선봉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투쟁에 있어서 300차 400차 수요시위를 성사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대중화, 전국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고 자주교류 및 연대사업또한 진일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기반의 열세는 꾸준히 극복해야하는 과제로 남아있고 역량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후 전여대협을 대중조직답게 세워내기위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간 여학생운동의 전반적 평가
3. 사상적영역평가
(1)여학생운동의 사상을 명확히하려는 모색의 시기였으며 여학우들에 의해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실천속에서 찾고 검증해가는 시기이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역사를 보면 여학생운동은 해당시기 당면한 정세와 운동조건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상을 찾고 끊임없이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성운동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그 시초를 찾는다해도 100여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사회적 조건의 특수성-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단되어 50여년에 이르고 있고 독재정권의 영향아래 많은 사회적 제약과 모순이 존재하며 유교사회의 봉건적 전통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만연하다- 때문에 여성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그 해결의방법도 세상 유례가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의 해방이념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속에서 각 시기마다 한계는 있었지만 여학생운동의 좌우경적 편향을 겪으면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주창하게 되고 그 이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밝히려는 과정이 단순히 책상앞에서 논의와 토론의 자리에서가 아닌 직접 사업과 투쟁을 벌여내는 과정에서 얻어진 값진 경험의 축척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상이 대중과의 실천활동속에서 나온 것이고 실천을 중심으로하는 실질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운동의 사상적 모색이 여학생운동을하는 여학일꾼들의 끈질긴 탐구와 실천의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경험과 이론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의 특수성과 그 근원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여학우의 입장과 처지에 맞는 여학생운동이론을 여학우입장에서 여학생운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은 운동의 주체를 밝히고 여학생운동의 자주성을 드높이는 과정이었다.

(2)이러한 과정속에서 여학우들의 자주성은 나날히 고양되어 갔습니다.
여학생운동의 과정은 여학우들의 자주성이 고양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학우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실천하였으며 그러면서 이땅의 주인으로서 자기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로는
여학우들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려하는 주체성이 강화되었

습니다.
여성, 여대생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만들어진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여성의 규격을 탈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남편 잘 만나 결혼하는 것이 최고이다라는 인식속에서 대학의 주인이기보다 간판을 따기 위한 인식이 팽배하였다면 지금은 대학에 들어온 대부분의 이유가 지적 욕구와 이후 사회에서의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위한 것으로 자기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대학에 당당한 절반의 구성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여 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대생이라는 말이 대학에 여학생이 많지 않을 때 생긴 말이하고 합니다. 대학에 존재하는 많지 않은 소수의 여학생을 가르키는 말이었고 심지어 남학우가 많은 단과대학에서는 여자 화장실이 있지 않을 정도로 여학우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기간 유권자의 숫자를 따져보면 알다시피 거의 여학우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대의 경우 여학우들의 숫자는 남학우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학우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여학우들의 시설을 당당히 요구하게 되고 대학에서의 자기권리를 확보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여학우들의 사회의식, 정치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정치의식이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교육과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집안에 있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민감하지 못한 것을 그원인으로 들었는데 대학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극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학선거에서의 여학우들의 투표율은 늘 남학우들에 비하여 높았었고 사회적으로 하는 지방선거 및 각종선거에서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아직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정치인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운동대오내에서도 전체운동 및 여학운동을 책임지는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에서 소모임이나 동아리등에 지도학번 내지는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여학우들의 수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학내에서의 많은부분 여학생들의 활동은 눈부시게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여학우들의 사회의식, 정치의식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여학우 남학우라는 성적 특질이 많이 해소되고 서로의 공통점이 더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이외에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많은 기준과 편견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일정 각성의 특질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은 순종적이고 얌전하며 남성은 강하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다든지 여성의 옷차림, 남성의 옷차림등등으로 여성과 남성의 기준이 크게 달랐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공통으로 참여하는 사업과 투쟁이 늘어나고 기간 여러 의식화 과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기준이 많이 무의미하게 되고 대부분 학교의 구성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공통적 특질이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당당해졌습니다.
특히 성폭력문제를 풀어내는데 있어서 여학우들의 태도는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우연히 알게된다고 해도 거의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했으면하고 오히려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여학생회 일꾼들을 피하고 비난하기 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도 거의 소문으로 돌다가 없어지거나 피해자를 설득하지 못하여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여학우들의 자발적 신고와 문제에 대한 처벌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성폭력을 다만 피해자로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해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극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자주성이 고양된 이유로는
우선 여학우또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본성적인 자주성의 요구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주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억압과 구속을 벗어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학우들도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굴레를 벗고 사회와 가정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려하는 본성적인 요구를 발현하는 과정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여러 해방이론과 사상들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80년대 이후 다양한 운동사조의 등장과 예전에 독재정권때 금기시 되었던 많은 책들이 해금되면서 많은 여성운동에 대한 서구유럽뿐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사상또한 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여성해방에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대되었습니다.

전체민주화투쟁의 영향과 그 속에서 많은 권리를 쟁취하게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ㄱ80년 광주민중항쟁, 86년 6월 항쟁 및 90년대의 많은 민주화 운동의 과정속에서 민주적인 개혁이 민중의 힘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에 여학우 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푸는 방법과 승리를 배우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로 얻어진 사회 법, 제도의 변화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차츰 더욱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여성문제를 조직적 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6년 유월 항쟁이후 많은 계급 계층을 망라하는 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결성가운데서 여성단체또한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조직의 결성과 조직을 통한 저항은 많은 여성대중을 포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여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중적 위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불리한 많은 법 제도에 있어서 개정과 신설이 여성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가족법 개정이라든지 성폭력 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등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회관습과 법,제도를 철폐하고 새롭게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들이 여성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 성취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신설된 법제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내에서 여학우들의 자주성이 강화된 것은
여학생운동 조직 및 여학생 소모임들이 결성되면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토대를 쌓아갔던데에 그 큰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내에 여성학 강의가 생겨나고 성폭력 상담센터 및 총여학생회 주관의 여성강좌, 성교육등이 안착화되었는데 여성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되면서 여성문제를 광범위하게 인식할 수 있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전 대오에 전파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이 주창된지는 거의10여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일꾼들 사이에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의 부족과 사업과 투쟁상에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는데 나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천과 일꾼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나날히 발전해가고 있는 여학생운동이지만 여학생운동이론에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학습, 토론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지난 몇 년간 지역여대협과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을 밝혀내려는 연구소위가 꾸려지고 실제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여학일꾼들이 모여서 진행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주체가 자주 바뀌다보니 계승되지 못하고 논의로만 끝나버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3)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밝혀내는 것이 잘진행되지 못하였던 이유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일꾼들의 신격화가 있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하여 '여학생운동이론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 맞는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이론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인데 학습도 별로 받지 않은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냐, 특수한 우리나라의 사정상 우리현실에 맞는 여성운동의 모델이 없다'는 등의 여학생운동이론을 밝혀내려는 활동을 하기 앞서서 여학생운동이론정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스스로 겁부터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밝혀내려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기보다는 전여대협이나 지역여대협에서 내려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상적 원칙을 굳건히 틀어쥐고 사상운동을 앞세우기 보다는 당면 투쟁과 사업에 급급하였습니다.
사상의 허약함은 결국 운동 전반의 허약함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여학생운동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는 조직적인 미비함이 크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큰 것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부재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늘 사상사업을 앞세우고 여학생운동을 진행하기보다는 그저 떨어지는 사업과
투쟁일정속에서 바쁘게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면서 나서는 문제를 준비정도의 부족함으로 돌리면서 사상사업의 부족함으로 귀결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모습으로 총화 평가하였습니다.

사상이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이악스럽지 못하며 구체적인 학습과 토론이 부재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몇 년 여학생운동을 했다는 사람도 여성학강의 한 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사상학습은 골간학생운동단위에서 담보 받는다 하더라도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학습은 방중에라도 하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상이론을 정립하려고 해도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잘 되지 않을 뿐 더러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시도도 못하고 이론 정립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반적인 학생운동의 풍토속에서 많은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을 가지기 보다 많이 좌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들이 갖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전체 운동대오내에서의 여학생운동에대한 이해의 부족을 이야기 합니다. 학생운동 대오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와 남녀차별 의식과 같은 봉건적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서 여학생운동가들이 많은 좌절을 하고 운동대오를 떠나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동내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풍토가 여학일꾼으로 하여금 자기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하여 운동을 이악스럽게 달라붙게 하기보다 소극적이고 운동에 대한 좌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상이론을 정립할 핵심들이 부재하였습니다.
대학마다 일꾼의 부재, 시간이 없다, 단위가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학습이나 조직사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운동을 진행하는 일꾼들의 학번이 그리 높지 못하고 경력에 있어서도 3년이상 운동을한 일꾼들을 손으로 꼽을 만큼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간부들의 기근난에 허덕이면서 사상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사람들이 실무에 쫓기다보니 거의 사상이론을 정립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여학일꾼의 경우 학생운동단위에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단절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성운동에 대한 여러 사상적 혼란속에서 올바른 이론 정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성운동에 대한 서구 및 사회주의권의 여러 다양한 흐름들속에서 그리고 90년 93년 동구권의 몰락과 민족민주운동의 변화의 과정속에서 여성운동또한 단일한 흐름이기보다는 많은 사상적 혼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속에서 여학생운동단위또한 전여대협을 위시로한 단위와 또다른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을 모색하는 흐름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이론을 밝혀내는 과정은 사상투쟁의 과정이고 깊이있는 탐구와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과정속에서 올바른 여학생운동을 찾으려는 것은 참 많은 시련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위와같은 여학생운동의 이론을 밝혀내려는 데에 일정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상이론이 그러하듯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업과 투쟁, 학습과 토론 과정에서 덧붙여지고 새롭게 정립되며 해석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간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밝혀내려는 노력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후 진지한 탐구와 실천에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4. 조직영역 평가

(1) 조직의 형태와 체계에 대한 평가

여학생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여학생운동을 풀어갈 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누구도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성들의 자주성이 고양되면서 일면 사상적 여러흐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대학마다 여학생운동을 풀어가는 조직은 한 두개라도 다 존재 합니다.
전체 운동의 어려움 속에서 비록 같은 운동대오내에서도 아직도 봉건적 잔재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 전체운동을 강화하고 여학우대중을 묶어내는 조직으로서 여학생운동 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그 건설을 두고 논란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그저 부문계열운동의 하나라는 운동의 인식에서 여학생운동 만큼은 전체 여학우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건설된 대중 자치 조직이라는 대중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해가 거듭할수록 총여학생회장님을 중심으로한 핵심들의 눈부신 활약과 사업과 투쟁에서의 여러 대중적 경험을 통하여 총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이 비상하게 높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각 지역여대협을 건설하고 전여대협이라는 전국적단위의 여학생운동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여학생운동조직의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기층대중조직과 전국적 조직을 가진다는 것은 운동의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학생회 조직의 형태에 관하여서는 일사분란 전일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여학생회의 체계에 관하여 회, 부, 위원회등의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또한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이 각 단위마다 다르게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각 단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다보니 그리고 여학생운동이론을 바탕으로 전일적인 사상통일의 과정이 아닌 상황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여러 이해가 각 단위의 운동적 경험과 관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단위의 역량이 열악하다보니 조직 체계의 불안함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어느정도로 인식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학생운동 단위의 역량이 크지 않고 재생산이 잘 안되다보니 그 역할만큼의 운동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부나 위원회로 체계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열악한 단위는 어떤 대안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한 것이 전체적인 역량문제에 기인합니다.

그리하여도 여학생운동단위를 중심으로는 회부논의에 있어서 지향성을 명확히 밝히고 당면한 실정에 맞게 풀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전히 깔끔히 정리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또한 여학생운동의 사상이론에 근거하여 전체운동과의 관계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학생운동 단위가 어떻게 여학생운동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학생운동 단위와 전체 운동단위와의 관계가 설정 되는데 이것이 지역별 대학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은 어느 단위나 골간운동단위와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해본 것이 드물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여학생회의 조직적 현황의 평가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수적으로 전여대협 역량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여대협의 결성당시 전여대협은 전체 70여개의 대학을 망라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현재 전여대협 산하 각 지역 여대협에 묶여있는 여학생운동 단위는(대학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25개정도 됩니다. 총여학생회가 존재하지만 전여대협과의 관계가 소원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10여개 대학정도가 있고 나머지 대학은 총여학생회를 해소하였거나 소모임 형태로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층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대 여학생회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지역별로 한두개 정도의 대학이고 그 대학에서도 단대 여학생회의 개수가 5개를 넘지 않습니다. 과여부는 중소캠은 한두개정도 큰 대학은 10개 미만입니다. 소모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한 개정도 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분명히 수적으로 본다면 전여대협의 조직적 역량은 90년 초반까지 계속 증대되다가 93년 97년등을 계기로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학생운동 역량의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여학생운동의 전반적인 약화의 상황에서 여학생운동가들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상층 핵심을 중심으로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결의가 높아지고 여대협 및 상층조직을 받아안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총여학생회장님 이상의 핵심들의 경우 핵심으로서의 활동력이 높고 운동경력도 깊어지고 있으며 총여학생회를 끝으로 여학생운동을 정리하는 기풍이 지역여대협과 대학운동을 더 책임지려는 모습으로 q변화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여대협이 꾸준히 간부와 의장이 꾸려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지역여대협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던 수준을 총회 내지는 대의원대회를 가져가면서 조직적 토대를 강화해 가고 있고 의장을 비롯하여 지역여대협 간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여대협간부와 의장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지도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단일한 투쟁을 만들며 연대사업까지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로는
96, 97년 학생운동이 탄압을 받는 시점에서 총여학생회장님들이 여학생운동 단위 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단위를 책임지면서 핵심으로서 단련되는 과정이 있었고 전체 변혁운동의 선상에서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여대협이 해를 거듭하면서 투쟁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축적되면서 대중투쟁의 모범이 늘어났으며 대학과 지역여대협을 중심으로 투쟁의 자립력들이 커지게 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성과를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층을 중심으로는 여학생운동 역량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한편 기층의 역량은 현저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과여부나 단대 여학생회가 많이 어려운데 결의를 하는 일꾼들의 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고 어린 학번들이 많습니다.

조직적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정권의 탄압에 의하여
핵심의 부재
재생산이 잘 안됩니다
조직교육 일꾼 내지 조직사상사업에 대한 계획과 구도가 없다.
여학생운동의 사상, 내용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서 운동을 풀어가는데 애매함이 존재
대중사업의 정형이 부족, 대중과의 사업이 소원
지도가 잘 보장되지 않습니다.

5. 대중 투쟁 평가

총론적 평가

대중투쟁의 폭과 수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큰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정세인식력이 빨라지고 주체적으로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음
전체적인 투쟁속에서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투쟁의 내용과 방도를 주체적으로 내오고 있다.
이러한 대중투쟁의 결과로 전여대협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투쟁의 높은 성과를 조직사업으로 잘 귀결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외세영역

반미투쟁

주한미군철거, 한미행정협정 개정투쟁, 윤금이씨 투쟁을 기점으로하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여대협의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이 전개되었었다. 반미의 흐름이 크게 형성되지 못하는 시기에도 반미의 구체적 내용으로 투쟁을 하면서 민족적, 계급적, 성적 문제를 함께 풀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투쟁방도로는 학내외의 주한미군의 범죄에 관련한 선전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기지항의방문투쟁, 기지촌 활동, 금요시위등이 전개되었다.
여학단위하면 주한미군철거투쟁이라고 이야기 할 만큼 주한미군철거투쟁에 있어서 선봉적으로 나섰고 그러면서 많은 일꾼들이 대중투쟁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아쉬운점은 주한미군 철거투쟁을 벌여내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도의 창출이 되지 못한점, 다른 반미투쟁의 고리와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반미투쟁을 벌이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계기에만 머무르고 연결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면이 있습니다.
또한 의식화하는데 있어서 여성민중을 중심에 둔 통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여성에 입각한 의식화의내용이 제출되는데 한계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지촌 여성의 살해문제를 단순히 미군범죄의 하나로만 인식하는 민족적 관점으로 바라보다보니 매춘이라든지 사회의전반적인 성문제와 가부장제에 대한 부분으로까지의 고민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일투쟁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투쟁

90년대 초반 제기이후 꾸준히 10여년간 전여대협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정대협이라는 전문단체를 내오고 꾸준히 연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년마다 큰 규모의 상경투쟁을 조직하여 수요시위를 적극화하였다.
학내에서 늘 주한미군철거투쟁과 함께 중심적인 투쟁사안으로 매 사업과 투쟁에 목적의식적 결합하여 알려내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대중화시키고 전국화시키는데 전여대협의 몫이 매우 컸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반일에 대한 각을 명확히 세우고 반일투쟁을 선봉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3자 연대의 관점으로 민족적 공감을 공동투쟁을 합의하고 풀어내었으며 조국통일투쟁에도 일조를 하였다.
다양한 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제출하였다.
아쉬운점은
기간 투쟁의 성과를 올바로 계승하고 이를 상승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민족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나 구체적 학내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도를 많이 고민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속작업의 미비가 있었다.

반독재영역 투쟁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늘 제기되고 투쟁들이 단위사업장별로 진행되었으나 기간 여대협의 경우는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연대사업의 부족으로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부재하였다.
다만 90년대 후반 노동법 개악이후 노동자투쟁이 활발해지면서 그속에서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또는 다르게 활동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움직이이 구체적으로 노조 결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여성들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제안 제출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여성노조의 출발과 함께 여학단위에서 연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여성노동자와의 구체적 연대를 통하여 여성노동문제를 학내에서부터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성차별적 법, 제도 개혁 투쟁

가족법, 성폭력 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등 여성의 법적 제도적인 물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낳았다.
아직 한국사회속에서 여성의 문제는 법적, 제도적 변화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대중화와 더불어 진일보한 법제도를 만들어냈던 성과가 크다.

반여성정권 타도 투쟁

여성들의 처지와 조건을 살피고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만들어내야 할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간 여성민중 생존권투쟁을 반여성정권 타도투쟁으로 상승시키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정권이 내놓는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계기와 사안을 살려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지배전략과 여성정책의 허구성 및 각 사안에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있다.

성폭력 해결 투쟁

여학단위의 주동적으로 독자적 사업영역으로 여학운동의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전개되어 온 투쟁이다. 학내에서 성에 대하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교육학교나 성문화제등을 꾸준히 전개하는 의식화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사건에 피해자 중심이되어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폭력 학칙제정투쟁으

로 이어져 학교에서 본부와 성폭력 학칙 제정을 두고 계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고 학우들의 공분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폭력투쟁이 사건이 터지면 계기적으로 알려내고 공분은 모아내나 이것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성폭력 학칙 제정투쟁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위가 있으나 편차가 다양하며 모범이 전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여대협 중심으로 전체 공동투쟁을 벌여내지 못하고 개별 대학대학에 맡겨져서 풀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부족하고 성폭력 투쟁의의의를 잘 각인하지 못하며 전체 투쟁과제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매매춘 문제나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투쟁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부장제적 요소를 타파하는 투쟁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호주제 철폐투쟁)도 문제의 인식을 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투쟁을 기획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투쟁하는데 있어서 가부장제나 성적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전체운동에 매몰되어 전개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국통일투쟁평가
전여대협 역사에서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활동과 고민은 꽤 깊다. 89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전국의 총여학생회장님들이 모여서 전여대협 결성을 기한 것처럼 통일투쟁에 있어서 전여대협 여학단위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자주교류 사업과 통일선봉대 활동,이북 여성바로 알기등의 사업이 주요로 펼쳐졌었고 대부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투쟁의 사안과 연결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공동 해결하기위한 서명운동과 공동집회의 성사는 반외세자주화투쟁과 밀접히 연관을 가지면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상층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있고 전 단위에 대중화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통일투쟁이 1년의 흐름 장기적인 흐름으로 고민되고 제출되기 보다는 계기적으로 바라보고 전개되는 경향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여학단위의 목표가 잘 수립되지 못한것인데 이는 통일투쟁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연대사업 영역 평가
꾸준히 농촌활동을 진행하면서 여성농민회와의 연대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여학생운동에서 포괄하는 대중투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연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고 그 폭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대사업이 전반적으로 물꼬를 트는 상황이고 구체적 공동실천활동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운동 뿐 아니라 전체 각 계급계층의 여성운동의 공동실천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대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점과 연대사업과 투쟁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도를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합니다.

<<여성 정세>>

1. 세계여성정세

1) 세계여성의 처지와 조건
전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는 대다수 여성들이 여전히 시장의 폭력과 제도화된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입니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소득이 1달러에도 못미치는 15억에 달하는 절대빈곤 인구 가운데 70% 가량은 여성이 차지합니다. 또 전체 성인 인구 가운데 문맹인구가 10억을 넘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우선 정치적 대표성 면에서 크게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의회연맹(IPU)이 6일 발표한 '정치 : 여성의 통찰력'이라는 보고서는 세계 65개국 의회 의원 가운데 13%만이 여성이며, 남성이 지배하는 정당들의 완고한 자세가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스칸디나비아반도 5개국과 독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만이 여성의원의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스칸디나비아 3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약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7일 최저생계선 이하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의 4분의 3이 여성과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이며,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은 공동성명에서 70년대 이후 최저생계선 이하의 빈곤여성 수가 50%나 증가한 데 비해 빈곤남성은 30%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전국노동조합회의(NTUC)는 보고서에서 임금평등법이 시행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임금의 남녀평등 측면에서 영국은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들중 10번째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아동기금(UNICEF)은 7일 한 연구결과를 통해 "남아시아 각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반적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세개여성의 투쟁
세계 여성들은 세계여성의날인 8일부터 10월17일까지 자신의 요구들을 토론하고 촉구하는 폭넓은 활동을 벌일계획입니다. 일명 세계 여성 대행진이라고 하는데 이 대행진은 지난 95년 캐나다 퀘벡 여성들이 '빈곤 추방을 위한 빵과 장미 행진'을 펼친 데서 비롯됐습니다. 2년 뒤 퀘벡여성연합은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행진할 것을 제안했고, 지난해 11월 퀘벡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행진을 위한 국제협력위원회에 우리 나라의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 11개 지역 대표 37명등도 참가해 구체적인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143개 나라에서 3000개 이상의 단체들이 동참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선포식을 연 뒤, 각국 단체들은 여성의 시급한 요구를 정부 등에 제기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오세아니아 등 권역별로 회의를 열어 요구들을

간추린 다음, 10월17일 각국 대표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 모여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종식, 제3세계 부채 탕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요구할것입니다. 한편 폭력의 추방을 위해서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의정서의 비준과 이행을 국가들에 촉구하며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의 비준 또한 빠지지 않는 요구입니다.

2. 미제에 의한 우리 여성민중의 피해

미제에 의한 전쟁책동과 경제적 침탈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공조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몰고가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때에 민족의 공멸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주한미군의 호전적 기질이 더욱 발동이 되는지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들의 폭행과 살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지금의 현실에서 기지촌문제의 해결을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미제의 경제침탈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더욱 예속화되고 민중들의 실직과 빈곤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해고에서의 성적인 불평등으로 인하여 이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책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동군사훈련, 무기수입, 무기실천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대통령후보 지명과정에서 보여지는 공화당 후보들의 강경발언, 미 CIA 국장이 하원에서 밝히 이북의 미대륙 공격 가능성 이야기등으로 전쟁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적 지배책동에 대항하여 정치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불사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세계 지배구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 대결구도가 명백해지고 있는 과정에 동북아 지역에서 친미국가들과의 군사적공조를 강화(대만, 한국, 일본)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전략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성을 계속 높임으로써 자신의 군사적 공조를 더욱 튼튼히 하고자 하는 계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 한축으로는 미국의 군수자본과 결탁한 호전 집단들이 미대륙의 전략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수천억 달러의 돈을 들이고서도 연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모면하고자 이북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미군에 의해 여성민중의 직접적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살해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씨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매카티 상병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의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주한미군이 살인집단, 범죄집단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카티 상병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비호아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처음의 진술을 번복하는 뻔뻔스러움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 히빠리 여성 서정만씨 피살

3월 1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사는 서정만(66.여)씨가 자신의 방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정만씨는 6`25때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아왔고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는 상태였으며 죽는 당시까지 미군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히빠리라고 하는 기지촌 여성이었습니다.
전날 미군과 삼하게 다투는 소리가 있었고 서씨의 사망원인인 심한 구타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지면서 그 전날 함께 있었던 미군의 소행임이 확실합니다. 김성희씨의 살인사건속보의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또한번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미군의 성노리개로서 성적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지촌 여성들의 경우가 많아서 법의 보호를 잘 받지못하고 언론의 보도에 통제 당하여 더욱 은폐됩니다 현재 기지촌 여성은 전국 50여곳의 1만여명으로 집계됩니다. .
80~90년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관광특구 지정, 동남아계 여성들의 유입과 IMF사태로 기지촌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하면서 때로는 성폭력까지 당하고 있고 김성희씨나 서정만씨처럼 언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45년간 그리고 현재도 소음과 폭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한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산율이 커지고 기형아의 출산이 수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지난 시기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고 민중에게 커다란 재난을 덮씌웠으며, 이러한 전쟁을 이용하여 재벌들의 부활과 경제의 상승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고혈로 세운 경제가 무너져 간다고 해서 또다시 식민지 침략으로 재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교과서와 수많은 서적들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민간기금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입을 막아보려하는 너덜한 수작이 군국주의음모의 부활과 함께 다시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요구가 거세어 지고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어긋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군사대국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만 하여도 경제대국, 미국유수의 기업을 모두 사들이는 제2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일본의 경제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본경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기간산업이 무너진 타국을 이용하여 급격하게 융성되어온 경제입니다. 그 이유로 내수산업보다는 외국 수출을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온 경우로 그러나보니 내수산업이 튼실하지 못하고 거품경제입니다. 특히나 지난 세기 말부터 아시아지역에서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 및 엔고현상으로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간 저축등을 통해 긴축생활을 하여왔으나 지난 10여년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속에서 이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중되고 있고 임금상승에 비해 급

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일본국민들이 도시외곽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생산에 비해 수요량이 저조하여 일본내에서 생산량을 더욱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위기를 일본의 역사상 제4의 위기라고 불릴만큼 위험지경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일본내의 극우파인 집권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전쟁과 동남아패권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그 첫단계로 한반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자위대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으며 이북의 미사일 및 납치문제들을 들면서 망언과 대북 위협발언을 강화하고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최근에 일본은 생화학무기 실험법안을 통과시키고 대북에 대한 호전적인 망언-이북에 대하여 일격을 가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으며 겉으로는 이북과의 수교문제를 내세우며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듯 하지만 호시탐탐 전쟁의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과거 청산문제의 오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구 일본군의 군속이었던 재일 외국인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 위문금 지급대상을 조선인 출신자들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날 국민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청산하려 했던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되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네델란드에 공식적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지만 한국의 위안부에 대하여서는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에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써왔습니다. 사죄는커녕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구미 열강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며 아시아 침략을 해방으로 묘사하고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들에서 과거 일제 침략 역사를 서술한 내용들을 없애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과거에 저지른 죄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범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일본전범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하였는데 최근 다시 이들이 틀어와서 개별적으로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금을 받으라고 선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옥주할머니와 이영숙할머니. 올해들어 벌써 두분의 일본군 '위안부'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아있는 피해자할머니들의 연세를 보아서나 몇푼의 위문금으로 과거의 죄행을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이러한 작태를 보았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않될 것입니다.

3) 유고내전 강간사건 재판 위안부 문제에 영향줄 듯

유엔 유고전범재판소가 20일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자행된 강간사건 재판을 개시함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한국등 아시아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강제동원한 '위안부' 문제도 영향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전범재판소측 대변인이 21일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전범 3명에 대한 재판은 국제 인도주의법상 '판례' 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법정에서 성적 노예 문제로 개인이 기소되기는 처음" 이라며 "국제법정이 강간을 반인륜 범죄로 기소한 것도 전례없는 일"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법률적 역사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며 "그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 라고 말했습니다.
란달 대변인은 보스니아 전범에 대한 강간재판과 관련, "국제 인도주의법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거둔 중요한 날"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 김대중 정권의 반여성, 사대매국적 행위는 그 끝을 모르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씨 살인사건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태도
이번 살인사건에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그들이 과연 한국의 검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동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최소한의 수사원칙인 현장보장 조차도 잘 하지 않았을뿐더러 현장검증시 철저히 언론의 통제를 하면서 사진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단체 및 기자들에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등 이전의 미군범죄사건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욱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김성희씨 사건을 접하면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도 매카시상병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전 김강자라는 여성경찰서장을 내세우며 한참 매춘과의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온갖 매춘 지역을 들쑤시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개혁적 모습을 보여주던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기지촌이라는 또다른 매춘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문제에 대하여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과연 그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보이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
수요집회가 400차가 되도록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보여준 모습은 다만 그들의 대사관 앞을 시꺼먼 전경들로 무장해 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들의 편에 서서 공식 사죄와 보상을 국가적으로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본과의 과거사는 이제 접고 새로운 화합의 시대로 가야한다는둥 오히려 전대 정권보다 못하게 일본에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것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단적인 예로 400차 수요시위 과정에서의 폭력 진압 또한 바로 정권이 보여주는 이 문제 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대적인 일본 대중문화 개방책동과 퇴폐향락문화의 무분별한 유입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영향이 그다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른 시일안에 3차로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개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제의 문화와 일본문화 개방 책동 그리고 김대중정권의 2차에 달하는 일본문화개방책동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사멸되어 가고 있고 미제와 일본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문화는 성상품화의 극치를 이루고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퇴폐향락적인 문화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여성성의 왜곡으로 잉크칠된 일본만화만 보더라도 어린 청소년의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해 있어 일본문화개방의 심각성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매춘근절의 허구성
요사이 신문지상 및 TV를 통해서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 및 미아리등의 윤락 향락 업소에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기간 정부가 매춘등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면 이번의 조처가 개

혁적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매춘의 근절에는 고민해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단속이 전체 매춘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보다는 미성년자에만 한해졌다는 것, 그리고 단속지역도 전체 매매춘 지역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몇군데 한시적인 측면과 매춘여성들에 대한 재활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다보니 실지로 매춘여성들의 매춘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해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매춘을 전체적으로 근절하지 않는 한, 매춘여성들이 포주에 의하여 착취당하는 구조자체를 없애지 않는한 매춘근절은 요원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각 당과 정치권의 선심성 여성공약 남발
매 선거때가 되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장미빛 공약이 나오는 것은 그리 놀라울 것이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각 당마다의 여성공약은 그 내용과 가짓수면에서 보나 화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할당제니 무슨무슨 제도니 하는 일반 여성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세우기 있지만 실지로 우리는 지난 2년여간 김대중 정권이 취임때부터 약속한 여성관련 여러 정책들과 과연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가지 법,제도의 신설이 여성민중의 생존권적인 여러 요구들은 대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땅 여성의 현실과 맞는 여성정책인지 의문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여성민중의 현실

1)여성노동자

①여성노동자의 현실
통계상으로 본 여성노동현실
15세 이상의 인구는 3천 6백만명 정도 됩니다. 이가운데서 여성숫자가 천팔백만명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숫자) 는 8백만 정도입니다. 약 천만명 정도의 여성이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4백만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전업주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들의 전체 실업률은 4.4%정도라고 정부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망실업자의 숫자가 제외되고 1주일에 몇시간이라도 일하고 있는 사람은 또한 제외되었기에 정확한 실업자의 숫자를 반여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전달이나 전년과 비교하여 1%에서 많게는 1.5%정도로 더욱 증가 추세입니다.
이는 여성의 고용현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정부가 실업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것도 잘 살펴보면 정규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수치상 실업률이 나아진다고 해도 여성의 고용에서의 착취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노동자 중 70.5%(통계청, 99년2월 현재)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남성노동자의 2배 가량되는 수치입니다. 금융권 신규채용은 90%가 비정규직이며, 그 가운데 82%는 여성입니다. 한편 파견직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법규위반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5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72.2%에 불과하고 해고를 당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상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출산관련 휴가를 주는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었던 여성의 재취직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IMF체제를 전후해 직장을 잃은 사람중 지난99년 4.4분기동안 다른 직장을 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 남자는 14만9백54명 , 여자는 7만2천5백6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취직에 성공한 남자과 비교,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1.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반해 이 기간중 처음으로 직장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자는 1만4천1백89명,여자는 1만3천3백89명이었습니다. 신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를 기준으로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94.4%에 달했습니다. 경력자(전직 실업자)의 남녀 비율보다 42.9%포인트 높았습니다. 첫 직장을 얻은 여자의 숫자는 남자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재취직 과정에선 남자 2명당 1명꼴로 급감한 것입니다. 지난 98년 1.4분기 신규고용보험자격 취득을 기준으로 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64.7%로 경력자 남여비율(40.0%)과의 차이는 2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IMF위기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원이 더 많았는데도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남성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등 고용기반이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정도로 여유를 되찾았는데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던 여성근로자를 재계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의 여성노동자의 현실
중소규모 사업장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 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전무하다시피 한 척박한 기업복지 수준, 사용자에 의해 해고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등은 4인 이하 사업장의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 조건은 바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98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여성 노동자 중 71%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 조건은 바로 여성 노동자 71%의 노동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를 비롯한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제정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근로기준법은 1989년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가 개정되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미루어 왔고 결과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개정 이후에도 10년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 1월부터 부분적이나마 근로기준법이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연월차 휴가에 관한 규정 등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조항이 적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노동자들의 권리

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확보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조사결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53.9시간씩 노동하고 있었으며, 판매직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주당 6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 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휴가사용(70.7%)을 비롯해 임금인상(67%)과 4대 사회보험 적용(45.9%), 노동시간단축(33.7%) 등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② 여성노동자의 투쟁

비정규직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성노조와 여성단체의 결성여성노동자들은 IMF 구제금융이 불러온 경제위기 앞에 성차별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임시직,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고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었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한 퇴직 압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균등한 처우가 당연시 되고 있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노동권, 평등권 마저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요구로 인하여 작년 서울지역여성노조가 결성된 이후 대전여민회 노동위원회 여성노동센터가 개소하는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실업과 반실업의 기층여성들을 위한 노조와 단체가 결성되어왔습니다. 또한 이번 2000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마산창원, 익산, 전주, 안산, 부천등 9개 지역에서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5년차 이상 비정규직 복직투쟁 승리!!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와 대한적십자 혈액원노동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회피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번 해고조치는 부당하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당사자들은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출근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1월 2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복직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1월 24일 동부혈액원장과 협상을 실시하여 이번 해고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2월 1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그동안 시간제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수당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본 건은 70%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건은 당사자들을 포함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확보해낸 커다란 성과입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설립
학습지 교사가 일어섰습니다. 위탁계약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12월 7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현재 학습지 교사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이번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신고필증 교부로 비슷한 노동조건을 가진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여성농민

① 여성농민의 현실
무방비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파탄과 농민의 삶의 현실지난 UR 농업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개방되었고 그 결과 농산물 수입자유화률은 99년 현재 98.3%이고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62%정도가 증가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6%도 안되는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작년 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었으나 지난 UR협상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올해부터 농산물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고, 오히려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은 농업부문에 협상력을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 농산물수출국들이 주장하는대로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관세마저 대폭 삭감된다면 2010년 안에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35%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는 6조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쌀생산액이 51.8% 감소하게 됨으로써 농업파탄과 식량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농업경영비 증가와 전반적인 소비부진에다 정부의 기본 농정이 영농규모화 확대에 두어짐으로써 농가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시설 투자로 과다한 차입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농산물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금리, 생산자금을 장기 저리 자금이 아닌 고금리 상호금융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악순환되면서 농가부채는 전체 28조원으로서 30.7%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을 모호하기 위한 의지는 약합니다. 개방, 자유화에 적극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한·미 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APEC 조기자유화 참여 등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방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던 쌀직불제도 기획예산처에 의해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확대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결국 연기되었고, 의보통합도 지역의보가입자에 대한 50% 정부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발생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유보하였습니다. 더구나 농촌지역 교육수준의 하향화는 젊은 청장년층의 이농을 더욱 심화시켜 연평균 7-8%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1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농촌지역 공동체는 쉽게 해체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농민의 농업생산비중의 증가와 이에 반해 여전히 낮은 여성농민의 지위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3.8%에서 98년 현재 4.3%로 급감하였고 2000년 이후 쌀생산의 지속적 감소와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농업부문 성장률은 연평균 -0.4%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부문의 비중감소는 경지면적,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업취업자수의 감소와 함께 생산부문의 구조변화도 동반하게 됩니다. 즉, 1990-1995년에 경지면적은 연평균 -1.15%씩 감소하고 농가호수는 -2.79%씩 감소하고 있지만 3ha이상의 대규모 경영농가수는 연평균 12.5%씩, 5ha이상의 경영농가수는 27.8%씩 증가하고 있어 농업경영이 규모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규모화는 식량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채소, 과수, 축산, 화훼 등 경제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작부체계의 급속한 변화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구도 98년 현재 4,399천명으로 70년 대비 -69.5%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 여성인구가 51.6%이고 남성의 경우 겸업화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업주종사자의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빈곤-환경악화-식량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이러한 국내농업 생산부문의 구조변화와 농가인구의 구성변화는 근본적으로 식량자급 실현과 환경보존 등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경영이 규모화되면서 평균 경작규모가 1.3ha 정도인 대다수 가족농들의 소득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면서 젊은 농업생산인력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기간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생산을 통한 소득보장 실현, 그리고 노동복지 향상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한 농업인력 육성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생산에서 절반이상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고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중요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은 영농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2월에 통과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전문인력양성이 강조되었고 여성농민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영농의 보조인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농업주종사인력의 여성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민은 농업경영상의 역할이나 인적자본수준에서 중심인력으로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1979년 유엔차원에서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여성농민의 생존과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신용접근권 확보, 협동조합 참여, 지역사회활동 등 각종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시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경행동강령, 세계농업기구 행동계획 등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성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농민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농이 농업의 근간이 되는 많은 나라들은 여성농민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농업과 농촌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책과제로 인정하고 있고 여성농민 인력육성정책을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여성농민정책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비교우위론적 정책에 의해 여성농민의 생존과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고, 농업생산에서의 역할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여성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왔습니다. 또한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생활개선사업이나 복지차원의 접근이 많고, 후계자 등의 다양한 인력정책에서 공동경영자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흐름뿐 아니라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보장형 농업, 환경보존형 농업, 통일대비형 농업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농민의 노동가치가 차별화·주변화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② 여성농민들의 투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는 여성농민이 주부가 아닌 당당한 농민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통일단결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농민에게 있어서 자주농업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신자유주의와 WTO에 대응하는 투쟁에 전체농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를 주요한 정책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부문에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생산기반이나 자본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제 3세계 국가의 경우 쌍무협상이나 우루과이라운드·WTO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통상압력으로 전면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을 강요당함으로써 이익의 분배가 소수 선진국에게 집중되고, 국내적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철폐와 기업의 민영화, 그동안 일정정도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었던 부문에 대한 보호장치의 전반적인 축소 등으로 경쟁력없는 산업, 계급·계층간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세계무역기구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구제금융체제를 반대하는 데에 특히 문제삼는 것은 차기 WTO협상의 '다자간투자규범'입니다. 이 규범이 현실화되면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각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수행(예를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스크린쿼터제 등 사회문화적인 필요에 따른 제한이나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등)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에 영세농이 대부분인데다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농가부채로 허덕이는 한국농업의 현실상 신자유주의와 WTO는 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아니며 여성농민들도 이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상승을 위해서 농촌지역 남녀평등의 확산을 위한 수첩제작과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여성 송년의 밤을 함께 한것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보안법 철폐 등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여대생
① 여대생의 현실
여대생 취업, 장미빛은 없다.
97년과 98년 취업 의뢰 건수와 99년 취업 의뢰 건수를 비교하며,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안한 고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다기능적이며 강도 높은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여성 인력을 원하는 반면 임금과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대졸 여성 신규 고용의 대부분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노동형태는 노동법적 조항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노동 현장의 이러한 변화는 여성 노동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같은 결성체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유도합니다. 실제로 IMF이전에 취업자의 81.2%를 차지하던 정규직은 IMF이후 57.7%로 떨어진 반면, 비정규직은 18.8%에서 42.3%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여성고용의 80%는 현재 비정규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김대중정권은 취업 공고에 나이 제한 조건을 철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공고에 키와 용모제한 조건이 없는데도 취업 과정에는 엄연히 작용하고 있듯, 나이 제한 조건도 명시적으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학내에서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우선 점점 대학에서 여대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대생의 비율이 절반이거나 더 많기도 합니다. 올해 새내기의 비율을 보더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일제히 등록금을 7%에서 많게는 15%까지 인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학비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서 휴학하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남학우들의 경우는 학비조달이 어려우면 군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학우들은 학교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등으로 학비를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여학우들의 휴학율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4년안에 졸업하는 여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학교수업만으로는 취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속에서 새내기부터 영어, 컴퓨터등의 학원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대학마다 시험기간이 아닌데도 도서관 자리가 없는 지경입니다. 남자들보다 두배는 열심히 해야 취직할 수 있다는 현실속에서 여학우들은 심리적 부담감과 어려운 경제현실고를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4) 여성단체

① 여성단체의 투쟁

여성단체의 낙선낙천운동

총선시민연대와 행보를 같이 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 선거기간 내내 총선시민연대와 함께 낙천낙선운동에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은 일부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 지지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28개 산하단체를 동원해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천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과 함께 반여성적인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12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주최하는 부패정치 추방대회에서 여성 대행진을 주도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주부선언의 형식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한국여성대행진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대행진에 발맞추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국내자체적인 여성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실업, 비정규직 확대 등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적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의식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목적아래 여성운동단체들이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리확보 및 여성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등의 여성빈곤해결과 가정, 직장, 사회, 미디어, 사이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공권력·미군·전쟁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등의 폭력반대를 UN과 그 회원국에 요구하는 엽서쓰기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성폭력과 매매춘의 문제

대학생 성지식 매우 낮아, 성행동은 개방적

대학생들의 성지식은 매우 낮은 반면 성적 행동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광대 손충기(교육학과)교수가 이 학교 재학생 834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학생들의 11.7퍼센트는 '여성의 월경주기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출산과정을 모르고 있는 남학생도 14.4퍼센트에 달했으며 남학생 17,2퍼센트와 여학생 45.5퍼센트는 '성병의 종류와 감염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의 생식기관의 특성을 알지 못한다고 답한 여학생도 17.5퍼센트에 달했고 여학생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4퍼센트는 '콘돔과 피임방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70퍼센트는 입맞춤이나 가벼운 포옹을 한 적이 있으며 진한 육체적 경험도 36퍼센트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26.4퍼센트는 성교를 경험했다고 응답, 4명중 1명이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결혼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43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 그렇지않다(35퍼센트)보다 많아 성에 대해 다소 개방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성교육이 필요하다(90퍼센트)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방법으로 정규 교과목 편성(42퍼센트)이나 전문상담기구 설치(22퍼센트), 전문가 특강(21퍼센트)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7. 조국통일정세

남북 여성지도자 16일 베이징서 만난다'

남북한 여성지도자가 오는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여성교류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원회 관계자 7명이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북한 아시아 평화와 여성연대를 위한 조선여성협회 홍선옥 회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며 '광복 55주년인 올해 남북한 여성교류를 활성화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접촉을 가질 예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위 관계자 7명이 7일 북한 주민접촉 승인 신청을 했다'면서 '이미 이 단체는 북한을 다녀오기도 한 만큼 승인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김길자 경인여대 학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 박정자 대한약사회 여성위원장, 강교자 대한 YWCA연합 사무총장, 박숙현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송경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사업부장 등입니다.

0. 전여대협의 조직, 사상적 현황
전국의 여학생운동단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1. 사상영역의 과제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면화하자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전면화를 제기하는배경
90년대 초반 자주적 학생회이론과 함께 자주적 여학생회,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이 주창되었다. 대부분 여학생회를 뒤져보면 낡은 문서의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관한 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운동은 과학적이고 올바른 운동이념에 근거하여 풀어질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외세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있고 분단이라는 민족적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사회라는 조건 및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봉건사회적 기풍이 아직까지 뿌리깊게 남아있는 복잡한 사회구조와 환경속에서 여성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하기에 북미의 여성운동이나 사회주의국가의 여성운동과도 일정 차이가 있으며 제3세계 다른 나라와도 또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간 여성운동이론의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현실에 맞는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념을 정립해들어가야 한다.
이런 요구속에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등장하였고 약 10여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학생운동에 대한 총론적인 이론은 정리되어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여성문제를 해명하고 그것을 풀어갈 여러 각론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학생운동의 역사가 그리 깊지 못하고 학외의 여성운동또한 여러 흐름을 가지고 풀어지고 있기에 그리고 모든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어가는 것이다보니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은 완성된 이론이기보다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늘 여학생운동의 이론에 대한 부분,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초의 부실함을 늘 끕고 사상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보니 여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모호함과 자신감 부족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늘 과제로만 제출하면서 실지로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부족했다.
2000년 새로운 세기, 이 땅 이천만 여성, 50만 여학우의 앞날을 비추어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정립에 더 이상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운동적 경험과 선진 사상 및 여러운동의 이론을 경험삼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 정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1) 자주적 여성상을 밝히고 있다.-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개조 변혁한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여학우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여성민중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다.

(2)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여성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3)자주적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여성)의 집단주의를 구현한다-자주적 대중조직에 의하여 여학생운동은 풀어진다.
자주적 여학생회가 여성민중중심 위력한 체계인가
①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자주적인 본성을 집단의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주적 여학생회는 사람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민중중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회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학우 중심, 여성민중중심의 사상이 됩니다.
모순이 있는 곳에는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투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한다는 자각을 하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사람의 자주성은 가장 옹호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움직임 속에 늘상 대중조직이 있게 됩니다.
즉 모순이 있는 곳에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 실현을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요?우리 여성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아니 길들여져 오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본성을 무시당해왔습니다. 정치에서 여성의 몫은 집안일이라며 사회참여도를 막아나서면서 여성의 정치의식을 낮추어 버렸고 경제에서 여성을 고학력 실업자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며(임금은 남성의 60%, 정리해고는 1순위) 차별을 만들었으며 문화에서 성상품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외모가 중심이 되고 그를 위해 최첨단유행을 따르기 위한 소비와 향락문화 등을 쫓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의 근거가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기지촌여성이나 강제 종군위안부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인식하는데 무리없게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군대의 사기고조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민족의 여성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담요부대라 이름불리워졌던 일본의 식민지시대 유물인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를 그대로 복원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여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음모에 말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주성을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집단을 지향하는 본성을 발현시켜내는 자주적 여학생회에서 함께 투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②자주적 대중조직은 우리 사회 성격과 임무에서 나오는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위력적인 학생회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조직은 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우선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주조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우선적으로 착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식민지 한국사회에서는 학우 자신 스스로의 자주성을 실현시킬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와 요구가 일차적으로 민족해방의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요구, 운동의 조건과 토대, 주체적 역량의 축성정도에 따라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그 해당 소요시기에 성장 확대 강화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조직으로서의 발전은 대중조직이 확대 강화되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시기 여학생운동의 요구되어지는 과제로 여학우의 대중화가 범국민 반미항전의 요구에 부흥해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투쟁의 의지로 모아내어 확대 강화될 때 위력적인 체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소속시키고자 하는 요구는 현실 참여의식의 확대를 대변하는 것이고 사회참여로 나아가기 위해 여학우의 처지와 조건의 이해는 개별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집단화하고 사회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낼 때만이 투쟁의 방향과 방도가 보이는 것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자주적 여학생운동은 민족자주와 계급해방을 통한 인간해방을 지향한다.

3.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한 과제

(1)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
-여성자신의 모순에서 깨어나자
-여성문제를 사회, 역사적으로 인식을 확대하자
(2)여성민중-여학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자-여성민중을 중심으로한 대중관민족성, 계급성 획득
(3)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자.
여성으로서의 자긍심, 인간으로서의 긍지
여성문제의 주체로서의 확고한 의지

4.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전면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으로 전일꾼이 무장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대한 신비감을 없애자.
우리 여학일꾼 가운데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의 정립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여성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오직 몇 년동안 여학생운동을 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 정립을 신비화하고 요원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기간 어느 운동도 아니 우리가 하는 여학생운동도 어떤 몇몇의 엘리트 여성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이해 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뿐더러 실지로 그러하다면 정말 여성운동은 여성학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운동은 당면 시기 운동을 하는 주체가 끌어가는 것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실천으로 운동의 이론은 정립되고 검증되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이론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기반을 둔 것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정립해들어가자.

여성문제와 여성해방이론등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
쉽게 이야기 하면 여성문제 및 철학, 역사, 정치경제학등 전반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한다.
여성문제는 단순히 남녀의 성적 차이에 의하여 나타났다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여성문제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 및 경제학과 철학등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의 중요성은 언제 어느때고 제기되었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실천은 늘 뒤전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 시간이 없다거나 무엇을 학습하여야 할 지 모르겠다는 것 또는 학습한다고 하여 당면 나서는 문제를 잘풀수 있을 것인지 하는 등등의 이유에서 였다. 사회는 좀더 복잡해지고 있고 그안에서 나서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상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나날히 교묘해지며 교활해지고 있다. 준비하지않으면 대중앞에서 단 1분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자신 스스로도 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순간 늘 불안해지고 신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에 입각한 학습 커리 제출
전단위 학습전투계획
학습 관련한 주체 마련 및 점검
정기적인 집단 학습 및 개인학습 구조 내용 계획 마련

정기적인 학습과 토론
항일여전사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에 있어서 모범을 발굴 전파유인물, 간부교양지 사업
여학일꾼 교양대회

조직영역과제

조직강화사업이란 무엇인가
조직사업이란 여학단위에서 당면투쟁과 사업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지를 안받침하는 사업 전반을 이야기 한다.
어쩌면 투쟁이란 조직사업에서 시작하여 조직사업으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사람이 모여서 뜻을 모으고 뜻을 모아 조직을 만들어서 그를 바탕으로 투쟁한다.
그리고 투쟁을 한 성과는 바로 얼마나 많은 대중이 조직으로 모여졌으며 조직성원들의 단결력 및 신념이 높아졌는지로 모아진다. 이렇게 본다면 조직 사업이란 투쟁을 하는 방도이자 출발, 귀결점이된다.

1. 자주적 여학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우리의 조직 역량의 많은 손실에서 매년 선거시기가 되면 각단위 여학생회는 한가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간부일꾼 발굴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골간의 간부가 인선이 되면서 여학생운동의 계승과 혁신의 한계를 적잖이 가지게 됩니다.
실제 지금도 전체 운동대오내 여학생운동을 풀어가고 있는 일꾼을 꼽으면 지금의 역량으로 어떻게 대중화와 더불어 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학생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와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과제가 있기에 이중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여학생운동가는 모두가 핵심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자주적 여학일꾼의 상
1)투철한 여성민중 중심의 변혁관을 가져야 한다.
여성민중의 삶을 나의 삶으로 인지하는게 바로 민중중심의 변혁관입니다.
민중중심의 변혁관이란 민중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고, 민중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변혁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며, 민중을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가는 투쟁정신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게 될 때 무비의 헌신성과 용감성, 영웅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여성민중이 세상의 주인으로 되게하는데 나서는 과제를 나의 과제로 자각하는데 변혁관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민중을 위해 살며,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것보다 값진 삶은 없습니다. 민중중심의 변혁관은 민중의 이익, 민중의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줌으로써 영

광스러운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한 변혁 투쟁에 서슴없이 바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투철한 여성민중 중심의 변혁관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인생관
나의 것이 전부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관점은 잘못된 자본주의의 병폐로서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며 그 사회의 주인은 분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중입니다,. 민중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요 삶이다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주적 도덕관
변혁적 양심은 변혁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자기 행동의 거울입니다.민중의 이익에 맞게 티없이 행동했을 때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고, 민중의 이익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을 때에는 죄책감을 갖고 자기 반성을 합니다. 우리 변혁 운동가의 양심의 자는 바로 민중이어야 합니다
자주적 여성민중중심의 대중관
민중을 변혁의 주인으로 보고 민중에게 봉사하며 민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변혁을 해 나가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자주적 조직관
조직을 단순히 단결의 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생명의 모체로 보면서 조직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면서 조직이 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의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엄수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학생운동가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주적인 여학생운동관
-승리에 대한 신심 낙관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생활기풍
-결사관철
철저하게 조직의 결정과 대중의 힘에 근거합시다. 대중만큼 지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학단위 일꾼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대중의 힘을 믿지 못하고 대중의 수준을 스스로 잣대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쟁이나 사업을 조직하는데 대중을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중속에서 지혜를 찾는다면 당장 대중은 우리 일꾼들을 믿고 따라 올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공된 일이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최대한 맡은 바 책임을 열정적으로 끝까지 완수하여야 합니다. 어느새부턴가 하기로 했던 일이 잘 되지 않고 폐기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도 부적한 것이 사업적을 해악을 가져오고 결국은 조직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한번 하기로 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는 것은 선택적인 구호가 아니라 관철하여야 할 구호입니다.

-자력갱생
다른 사람의 창조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배끼려 하지 말고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려갑시다. 우리 여학일꾼들은 모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듯이 모든 일꾼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과 여성해방은 바로 2000년 범국민 반미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낙적전인 생활기풍
올바른 변혁이론을 터득하고 여성해방의 단계를 변혁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등, 자신의 처지와 조건만을 내세우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운동의 수준이 아직은 이정도 이지만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기에 우리는 한시도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중의 삶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니까요

2)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
정세에 민감하고 안목높은 판단력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내올수 있어야 한다.
대중을 선전선동하는데 능통하여야 한다.
조직은 운영하는 수완이 뛰어나야 한다.
운동과 대중을 진두지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성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여학생운동이 변혁운동을 강화하고 풍부화시켜내도록 자기 영역, 즉 전문성에 기반한 대중 의, 조직화를 제대로 이루어 낼려면 여학생운동에 대한 막연한 자부심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운동의 조직사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전망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근거하는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으로 되기 위한 기본전재조건입니다. 여학우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눈을 뜨게 하여 자기삶의 주인주체로,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여학우들이 살아온 경로를 제대로 알고 투쟁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총적 방향은 여학우들을 자주적 주인주체로 일떠세우고 봉건사상타파와 자주, 민주, 통일의 전면화로 민족자주정권수립과 통일조국건설을 이룩하고 인간해방을 안아오는 것입니다.

3)여성민중에 근간한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4)실천적으로 여학생운동가가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하여 들어가야 한다.
모든 사상과 이론은 생활상의 구체적인 보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상은 생활의 작은 말이나 태도로써 학우들에게 다가서고 그것은 어떤 논리적인 도구보다 그들을 교양, 설복시키는 강위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주적인 여성상을 간부일꾼 스스로가 구현할 때 대중들은 한없이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 1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아직도 정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학생운동을 두고 수십 년의 투쟁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과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비교하려 들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눈 앞의 성과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고 내가 조직한다는 결의로 해왔던 지난 여학일꾼 선배전사들을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2) 자주적 여학일꾼을 만듭시다.
여학생운동가 재생산을 위해 간부단련 사업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 우리의 운동수준을 봤을 때 무한한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을 풀어가는데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주체를 계속생산 계속 발굴하는 것입니

다.
먼저 투쟁속에서 일꾼을 찾고 대중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며 이것은 즉 교육, 조직생활, 변혁실천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1)사상학습을 실속있게 해야 합니다.
학습과 생명의 양식을 통해 사상통일을 확보합시다.
개인학습과 집단학습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펼쳐 나갑시다.
학습은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하는 기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세토론을 모든 회의와 모임 속에서 전개합시다. 정세에 대한 이해부족은 사업과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잘 깨칠 수 있게 합니다. 개괄적 정세와 구체적 정세를 잘 분석하여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세 토론을 일상화합시다.
2)자주민주통일 실천과 결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학생운동이 전체운동에 강화복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사색을 통해 운동이론을 창출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3)특히나 여학단위는 전투적인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투적인 조직생활은 핵심을 키워내는 종합적인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여학생회 단위에서 무척이나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조직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과 지도를 받으며, 비판과 자기비판 속에서 조직성을 키워가며 운동가로 자라기 보다 실무를 분공하는 정도로만 하는 편의적인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이것은 운동가의 활동력을 떨어뜨리고 사상의지적 결합과 동지적 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조직생활은 구성원들을 변혁운동가로 키우는 과정인 만큼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적 임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상세히 도와주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결합을 고쳐나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직의 품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사업을 잘합시다.
운동을 하는 과정은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투쟁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

운동의 첫출발은 동지를 얻는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과연 동지라는 것, 함께 하는 여학일꾼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운동이란 물론 나자신이 모순을 느끼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이 그 출발이다. 우리가 하는 운동이 그저 한사람의 능력에 의하여 풀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동지라는 것 민중이라는 것을 생각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다만 몇 명의 사람에 의하여 풀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전 대중이 투쟁의 대열에 나설 때만 그 위력을 가지고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운동은 나만 잘살자는 운동이 아니요 함께 모든 여성민중 전체 민중이 잘 사는 길이다. 옆에서 다 쓰러져가고 죽어가는데 나만 배불리 먹고살자는 것이 아닌 인류 모두에 대한 최고의 실천적 사랑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운동의 목표는 대중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투쟁의 대열에 나서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런 근본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우리 운동의 출발은 나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지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첫출발이자 귀결일 것이다.〕

총화를 잘하자.
주체총화를 정례화하자
사업에 바쁘다보면 모여서 사업논의하고 정리하는데 급급하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일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대부분 사업이 잘되고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서로를 점검하고 혁신의 과제를 내오는 것은 기계의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필요하다. 그러 문제가 터지면 그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총화를 정례화하자
주체총화란
그저 솔직히 모든 것을 동지와 조직앞에 내보이는 것이라는 것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주체총화라는 것이 서로의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버릴 수 있다. 주체총화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총화를 할 주체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체총화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총화할 수 있는 틀거리를 내와야 한다.
그리고 주체총화를 진행할 때는 무작정 생각난대로 자신의 감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모습이 성과였으며 그 요인은 무엇이었고 그렇지 못하였던 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고민하여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총화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혁신과제를 내와야 하며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꼭 자신의 총화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비판의 말을 하여야 하며 설혹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더라도 우선은 접수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회의와 모임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고민을 잘 총화하자
조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자
조직생활에서 조직성원의 위임분공 및 활동총화와 고민총화를 기본에 두고 진행하자
동지애를 구현한 많은 예시를 읽고 습득하며 실천과제를 내오자마니또 게임, 진실게임, 동지에게 편지쓰는 날 및 동지애경사 챙기기 등등

평가를 잘하자
평가의 중요성
평가를 잘해야 성과점을 챙기고 오류 한계를 짚어 다음에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극복대안
평가문서를 남기자
다음 사업준비시 지난 평가 내용을 꼭 숙지하자
평가를 중앙에서 몇몇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과 함께 진행하고 돌려주자평가시기를 놓치지 말자-평가하는데 1박 2일을 넘기지 맙시다.
나중에 한다고 하면 또 놓치게 되고 정리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평가의 정형을 만들자
평가틀을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내온다.
평가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함께 회의를 조직하고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내용을 공유한다.

비판문화를 일상화하자
혁명적 조직규율과 혁명적 원칙을 위반할 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혁명적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동지들간의 신뢰, 믿음 또한 약해질 것입니다.
비판과 사상투쟁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나갈수 있으며 일꾼들 속에서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직안에 비판과 사상투쟁의 기풍이 확립되어야만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을 극복하고 조직사상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일꾼들 모두가 튼튼한 혁명가가 될 것입니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원칙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덮어두지 말고 제대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판을 진행할 때에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날카롭게 사상의 각을 세우고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결함을 지적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함을 발생시킨 원인과 고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합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동지적 사랑의 표현으로 알고 허심하게 받아들이며 대담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혁신하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주변에서는 잘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는 결함을 고쳐주겠다는 자기 책임성이 높게 발현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방도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꼭 회의석상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천을 중심으로 전대되어야 합니다.
학습생활을 정례화하자
간부일꾼의 역할 및 분공을 잘하자

2.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자
(1)기층여학생회 건설에 사활을 걸자
변혁정세가 발전함에 따라 변혁의 자주의식과 조직적 결속은 변혁운동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즉 여성민중의 변혁적 요구가 미국의 경제침탈속에서 여성의 생존권 위협을 경험하면서 생존권의 요구에서 반미 투쟁의 요구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성민중과 여학우 대중의 의조직화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은 운동을 더욱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대생은 지금시기 예비 여성실업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투쟁력을 묶을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회가 근원적으로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자기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 일꾼은 지금 몇 명의 여학우를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투쟁하고자 하는 여학우에게 자기 조직을 주고 투쟁하고자 하는 열정을 표현해 내지 못하는 여학우들에게는 여대생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본성을 일깨워 주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즉 학우대중 한 명을 만나도 여학우를 더 만나고 여학우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여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기층여학생회를 건설의 중요성 및 올바른 관점을 갖자-기층여학생회 건설의 원칙과 경로
-자기대중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자
여학우 대중을 광범위하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자기대중을 의·조직화하는 것과 더불어 무작위 대중에 대한 대규모적인 선전 의·조직화 방도가 있습니다. 그중 후자 무작위 대중 의·조직화에 대한 단위의 실천과제는 일상적으로 제출이 되나 전자, 즉 자기 대중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부터 실현과제를 도출하는데는 고민이 많이 앞습니다. 그것은 기층 여학생회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단위가 많으면서 자기 대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대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만 있다면 원칙을 놓치지 않고도 여학생회의 기층을 건설 강화 할 수 있습니다.
2)여학생회 건설의주체를 명확히하자
3)여학생 단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장기적 구도와 계획을 수립하자4)지도가 핵심이다.
-자주적 사업방법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지금 왜 이 투쟁이 제기되는지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일꾼의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기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먼저 간부 일꾼들이 사업과 투쟁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자각으로 자기 단위의 과제에 맞게끔 투쟁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층단위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문제의 중심고리를 잘잡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범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 해야 합니다.
▶기층 지도사업의 자세와 원칙
- 이신작칙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 일꾼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시켜야합니다.
- 난관에 굴복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대중속으로 간부들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2)전여대협에서 과여부, 소모임까지 전일적인 체계를 구축하자상층조직의 건설의 정형을 계승 발전시키자
대의체계를 잘 발동하자
★기층건설의 모범을 만들어내자
●소모임 건설
기층이 약한 대학에서나 단대 여학생회에서는 모두들 소모임 건설에 대한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모임을 통해 여학생회 사업의 내용을 교양하고 지속적으로 묶어내어 구체적인 자기 대중을 확보하게 되고 이 우 여학생회 핵심 일꾼으로 커가는 유력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모임 주체를 꼭 세웁시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핵심이 똑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뽄대있는 소모임 사업을 계획한다면 우선 주체부터 튼튼히 세우고 주체의 준비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모임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여학생회 소모임은 단순히 조직적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재생산 구도의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한시적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년마다 새롭게 건설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개별 한두명만이 남는 상황이 되어 결국을 모임이 와해되는게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모임의 목적 그것에 합의하는 일꾼 및 학우들을 모아내야 합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묶었다가 투쟁의 내용이나 사업내용에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가는 학우들이 없어야 합니다. 오든 대중사업과 투쟁에 여학생회와 인연이 있었던 학우들은 소모임으로 묶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학단위 사업의 후속작업은 모아진 소모임에 묶이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합니다.
▶이런 소모임을 만들어봅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 소모임
-학내 성폭력 방지 소모임 (올바른 성문화 연구 소모임)
-이북 여성 바로 알기 모임
-기간 소모임의 형태를 결합하자 - 소식지, 비디오 소모임
반드시 소모임의 학습 내용은 학우들과 공유하는게 중요합니다.
선전물을 통해서나강의실에서 인사를 통해서나 꼭 대중적으로 공유합시다.
단위 마다 단위의 특색에 맞게 요구에 맞게 소모임을 조직해봅시다.
이것이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복무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단대 여학생회가 없는 곳에 대한 주체마련의 토대로서 소모임건설을계획하고, 단대 여학생회는 과여학생부가 없는 곳에대한 장기적인 고민으로 소모임을 건설하여 지도합시다.

●과여학생부 지도
과여부 모범 창출로 그 모범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대학별로 기층 강화사업을 고민하면서 과여부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여학생부 발전 특별위원회 (과여발특위)및 과여부까지의 확대운영위 및 지도사업을 내실있게 가져가는 여러 방안이 그간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의 성과를 계승하여 기층 과여부를 강화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여발특위 모임을 가져갔을 경우 성과는 총여에서 직접 기층을 지도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기층 학우들의 의식흐름에 맞게 할 있게 되고 또한 기층 일꾼들이 직접 학우들과 총여학생회 사업을 풀어나가는 성과가 있지만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단대 여학생회나 과학생회와의 총화를 잘 하는 문제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임 총화서를 가지고 직접 단여나 과학생회에 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여부까지 확대 운영위를 조직하는 것은 총여학생회 단대 여학생회의 기층 과여부의 전일적인 지도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대학의 사업방법일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주기적인 것이 중요하며 과내에서 과여부 운영위를 할 수 있도록 즉 자기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의원을 조직하고 대의체계를 발동하여 사업과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3월 시기 대의원 모집에서 여대의원을 모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과여부에서 자기 전문성을 가질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매주 수요일 여부원들과 여성학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학우들에게 선전해내는 것이나 과행사가 있을 때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골간단위 및 운동단위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자

대중투쟁과제

1. 반미자주화투쟁

올해에도 반미자주화를 주선에서 놓치지 않고 투쟁하여야 한다. IMF이후 취직의 어려움, 부모님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나 이로인한 배움의 권리조차누리기 어려움 대학생, 여대생의 경우 생활고를 이기기 위해 학교에 있기보단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심지어는 원조교제까지도 하게되는 경우들... 여성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여대생의 삶의 곳곳에도 미제의 의한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식민적 모순에 맞서서 더욱 과감성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간 여학단위의 반미자주화투쟁이 활성화되었지만 학우들의 참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일꾼들 중심의 투쟁으로 그치는, 또한 기지촌여성이 미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터지거나 계기적인 사업이 제출되었을 때 무언가 해보려는 기세로 달려들고 시작하지만 한시적으로 끝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시기 이러한 한계를 딪고 정세의 요구대로 대중의 힘을 발동시켜 '미국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끊임없이 울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속에서 투쟁의 폭과 수위를 높여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한반도내에서 미국에 의한 여성의 유린을 볼 수 없다라는 여성민중에 대한 책임성과 끈질김으로 반미투쟁을 일구어야 한다.

● 주한미군존재로 인한 여성의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되는 여성의 범죄, 퇴폐향락문화의 유포, 미군주둔비용으로 이한 여성복지비의 축소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주한미군철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되는 이러한 여성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되겠금 하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 주한미군에게 한국의 여성을 상납하게 하는 기지촌을 철거하고 기지촌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상품화를 조장하는 미제의 퇴폐향락문화를 척결하여야 합니다.
①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학살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여학단위 자체적으로 학우들과 여성단체를 전민특위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광범위한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미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북에서 제안하고 남과북이 함께함으로 반미투쟁과 더불어 조국통일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도입니다. 활동에 있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만행을 조사하고 투쟁화 하여 여성민중들 속에 반미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② 일상적인 금요집회결합과 학내 금요집회만들기
수도권지역은 일상적인 금요집회의 결합과 금요집회를 주동적으로 자주적 여학일꾼이 힘으로 만들어 가기위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학내에서 금요집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여학단위에서 먼저 만들어 가더라고 실제 용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처럼 매주 마다 골간의 과나 단대에서 또는 동아리단위에서 돌아가면서 주최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우들이 금요집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③ 기활활동과 기지촌탐방단 활동
작년에 이어 전여대협 기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올해는 미리 의조직화과정을 내실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실천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활기간에 금요집회를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기활학교를 학내에서 대중적으로

준비하여 학우들이 여성과 아이들, 공여지의 문제등 기지촌 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배우고 분노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활활동을 대중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별로 기지촌탐방단을 대중적으로 꾸려서 하루정도 기지촌 지역을 돌아보고 기지촌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배울 수 있도록 조직화합시다.

2. 반일투쟁

전여대협의 반일투쟁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투쟁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가 노골화되고 사대매국 정권인 김대중정권의 친일행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투쟁을 반일반전투쟁으로 확고히 하고 전민중의 힘으로써 쟁취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다시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을 대국민적으로 알리고 이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 친일 사대매국적인 김대중정권을 퇴진시켜야 합니다.
●
① 일상적인 수요집회결합과 학내 수요집회만들기
금요집회와 같이 주동적인 수요집회의 결합과 학내 수요집회만들기를 성사시킵시다.

② 남북해외 3자연대 서명운동
작년의 성과를 이어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정권과 일본정부를 압박해 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수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이니만큼 서명작업을 통해 대중을 의식화하고 투쟁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서명운동을 통하여 남북해외가 똑같은 피해자로서 투쟁을 함께하고 있다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③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소모임
올해 단위별로 준비하고 있는 소모임을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소모임으로 기획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있도록 합시다.
전범법정의 준비나 학내의 의식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집회를 참여하거나 나눔의집을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방도로 소모임활동을 기획하도록 합시다. 일본군위안부투쟁 전담반이라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④ 전범법정, 수요집회 참가단
학생 전범법정이나 국제법정을 참석할 수 있는 참가단을 조직화 하도록 합시다. 또한 학교별로 학내에 조성되고 있는 투쟁의 흐름을 총화할 수 있도록 수요집회 집중하는 날을 정하여 수요집회 참가단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⑤ 학교별 전범법정 만들기
2000년 학생 전범법정이나 국제법정을 모든 학교가 함께 준비하지 못하고 한계가 존재하므로 학교별로 단위의 성과를 챙기기 위한 학교별 전범법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전범법정만큼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인식극이나 마당극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내에서부터 전범법정의 관심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

3. 여성민중 생존권쟁취 투쟁

1) 여성노동자투쟁
작년 전국여성노조와의 연대을 통하여 전여대협차원 여성노동자 생존권을 조금씩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권투쟁으로 전면화 하고 반미투쟁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은 이제 벼랑 끝까지 밀려나 있고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투쟁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3.8대회때 전국여성노조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민주노총과 서울여성노조에서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결의한 것을 보더라도 전국 9개지역에서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가 발족됨을 보더라도 여성민중의 분노가 치솟아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대생의 삶또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대생이 휴학과 자퇴를 하고 배움터를 떠나 일터를 향해 나가고 있고 취업자체도 힘들 뿐 아니라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지금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여성노동자의 삶의 고통은 민중의 삶은 아랑곳 없이 부정부패만을 일삼은 김대중정권의 반여성성과 반민중성, 사대매국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한국경제를 식민지경제화 하여 송두리채 집어삼키려는 미국제국주의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속에서 생존권의 투쟁을 반정권, 반미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반여성적인 노동시책을 벌이는 김대중 정권 퇴진시키고 미제의 경제침탈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 여성노동을 착취하는 매판자본과 악덕고용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 여성의 고용을 창출하고 여대생의 취업대책을 마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리휴가 폐지반대와 산전산후휴가 90일확보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업장내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한 노동권이 인정되기 위한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 분단의 현실에서 기인한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군복무가산점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① 노동지기활동과 예비조합원 모집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조에서 진행되는 노동지기활동을 계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여대생에게 예비여성노동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화활동을 통하여 전국여성노조로 예비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② 투쟁하는 사업장에 지지방문
지지방문단을 구성하여 여성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학우대중들이 실천속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계속적인 지지방문속에서 여성노동자와의 뜨거운 동지애를 돈독히 하여 이후에 공동연대투쟁을 만들어 가기위한 끈끈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갑시다.

③ 의식화사업을 강화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력
여성노동현실을 알리고 여대생 취업조사공개하여 여성노동자

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직시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여성농민투쟁
지난 UR농업협상으로 인하여 식량의존도가 증가하고 농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농가파산, 경작지 상실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다가 IMF이후로 농가부채는 30%이상 증가하여 농민들의 생활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전체농민으로써 감당해야 할 고통과 함께 여전히 농촌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가부장제와 봉건적 잔재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적 삶은 더욱 억압받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농민의 일인으로써 WTO협상 대응을 위한 투쟁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이 현저하고 낮고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전담하고 있지만은 농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농민 문제의 척결을 위해 전여농에서는 여름농활시기를 전후로 하여 농촌지역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수첩제작 및 교육을 실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① 전여농과의 연대와 여성농민반 활동

4. 반가부장제 투쟁

1) 성폭력반대투쟁
기간 성폭력반대투쟁은 학내성폭력규제학칙제정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몇학교의 경우에는 학내성폭력규제학칙제정투쟁이 학칙제정을 위한 투쟁만으로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칙제정은 성폭력으로부터 여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하기에 학칙제정투쟁은 학칙제정과 함께 학내의 성폭력의 문제와 사회의 성폭력을 알려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안착화 하기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칙제정에 있어서도 본부와의 타협식의 제정이 아니라 학내의 여론을 형성하고 학칙제정의 제반근거를 마련하여 본부를 압박해 들어갈 대중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 진정으로 학우에 기반한 학칙제정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칙제정투쟁을 사회의 성폭력의 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의 문제가 학내의 문제로만 국한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칙제정이 전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측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광범위한 힘을 집결시켜 정권으로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 학내성폭력으로부터 여학우들을 보호하고 학내 성폭력문화의 유포를 막기위한 학내성폭력규제학칙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학교와 가정, 회사, 집회등 모든 사회의 성폭력을 척결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학가의 퇴폐향락문화을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을 안착화시켜야 합니다.

① 전여대협차원의 대책위 결성
학내성폭력규제학칙제정을 위한 전여대협 대책위를 구성하여 전국의 분산된 투쟁의 힘을 전여대협으로 집중하여 집단의 결집된 투쟁력으로 투쟁을 일구어가야 합니다.
대책위차원의 세미나를 통하여 학교마다 고민되는 지점을 논의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학우들의 요구와 이해가 전여대협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여론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합시다.
여학단위가 없는 학교도 성폭력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학단위가 없는 대학에도 제안하고 대책위를 함께 구성하여 더 많은 대학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합시다.

② 공동투쟁
전여대협에 소속된 여학단위외에도 학내성폭력규제학칙제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단위와의 공동연대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된 사안이 있다라면 분산된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대한 서로의 고민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2) 매매춘반대투쟁
위안부와 기지촌의 문제
특수한 계층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매매춘의 문제가 IMF이후 여고생의 5명중 1명꼴로 매춘업에 종사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전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매매춘의 문제는 자본의 이윤착취를 위한 성의 상품화와 IMF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매춘을 필요악이라 생각하는 성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매매춘의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 이윤을 위해 성을 사고팔고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적 구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하여야 합니다.
● 매춘여성을 매춘계의 사슬속에 묶어두고 착취하고 매춘여서의 생존의 위협마저도 가하는포주를 척결하여야 합니다.
● 매매춘차체를 반대하여 매춘지역의 철거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매춘여성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어린 소녀들을 성적 도구화하고 삶을 황폐화시키는 원조교제를 척결하여야 합니다.

① 한소리회와의 연대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와의 연대속에서 매매춘문제의 본질와 현실을 알고 매매춘근절투쟁을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② 의식화작업을 강화
흔히들 매춘여성이라 하면 천한 여성으로 취급하거나 매매춘의 문제를 성을 파는 여성의 잘못만으로 본다든지 매매춘을 필요악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는 작년 공창제도의 입법화과정에서 보여진 여론의 한측면에는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공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중들속에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매매춘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지못하고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계층의 문제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속에서 어떻게 매매춘이 형성되고 여성이 이용되고 있는지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대중이 인식하고 여론화되어 투쟁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성문화개선투쟁
우리의 생활곳곳에서 퇴폐향락문화와 여성의 성을 왜곡되게 포장시킨 문화적 조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문화의 홍수속에서 알게모르게 민중들의 사고속에 왜곡된 성인식이 형성되고 있고 성개방이라는 이름아래 성상품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의 광고 선전에서도 성상품화는 다반사의 일입니다.

5. 조국통일투쟁

조국통일을 2000년 가까운 몇해안에 이루어내자는 결의속에서 통일운동은 민간급의 교류로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통일의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작년과 올해로 넘어오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여대협도 작년의 성과를 이어 더욱 대중적인 통일투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들부터 여성에게 있어서 갖는 통일투쟁의 필요성을 각인하고 민중들에게로 확산시켜 여성민중이 통일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층에서부터 조국통일투쟁의 흐름을 만들기 단위별 계획을 내올 수 있도록 하여 투쟁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군사적으로 식민지화하는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조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북과의 자주교류사업을 기층에서부터 대중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 반공반북이데올로기 척결하고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합니다.
① 전민특위
전민족의 힘으로 미제의 살인만행을 파헤치어 미제의 실체를 폭로하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미제를 총결산하여야 합니다.
② 일본군위안부서명운동
③ 초청사업, 북녘유적답사
④ 범대회관련사업
⑤ 전여대협 통선대
⑥ 이북바로알기

6. 연대사업

최근 몇 년사이에 여성운동의 영역과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되면서 연대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여성단체들도 다양한 연대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로의 행사를 참여하는 정도의 계기적인 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여성운동의 특수성과 그리고 아직 각 단체의 조직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관계로 골간단위의 연대의 폭과 방식과는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여성운동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는 연대활동을 고민해야 하고 여학단위나 연대단체나 서로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서로의 조직과 운동에 질적 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대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조직의 조직력이 아직은 약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투쟁을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과 조직간의 연대연합이 강화되고 측면볼 때 올해의 연대투쟁은 연대의 관점을 제대로 잡고 연대단체와의 잦은 만남과 교류속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고 공동의 투쟁과제를 함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 따로이 연대사업을 진행한다기 보다는 매시기 투쟁의 과제를 연대단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투쟁의 방도적 측면으로 강화하여 결집할 수 있는 조직들이 사안별로 묶이어서 공동연대투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7. 각 영역별 투쟁의 연관성

많은 여성문제가 민족적인 모순과 계층적 모순, 성모순이 첨예하게 얽어져 있어서 '이문제가 무슨투쟁이다.'라고 딱 짤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반일투쟁으로 규정하였지만은 반일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문제의 일면만을 바라볼 뿐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의 문제에서 가정이나 사내의 또는 학교에서의 성폭력등의 문제도 있지만은 일본군위안부문제나 기지촌여성의 문제도 군사주의에 의한 성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춘의 문제에서 최근 매매춘의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미제의 퇴폐향락문화와 미제의 경제신탁통치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로 본다면 매매춘투쟁을 반미투쟁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각각의 여성의 문제에서 반미자주화, 생존권, 성폭력의 문제등으로 나누었지만 각각의 투쟁의 과제를 한가지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전여대협 총회
전여대협 출범식
전여대협 여름수련회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11차 범민족대회
전여대협 겨울수련회
학내성폭력규제학칙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전범법정준비를 위한 소모임